

# 얼굴 미술

443



December 2021

since 1976

9 771227 312009  
ISSN 1227-3120  
12  
우수인용권  
13,000원



1



2



3

### 1 이은우 팅굴팅굴

11.6~12.18 더 그레이트 컬렉션

스킬자수와 사색을 요구하는 가구. 이은우의 조각은 계획 없이 시작되어 포근한 표면과 재미있는 외형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개인적 공간을 채우는 오브제들은 마음 편히 Tinggul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가는 치열하고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구현되며, 그것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의 이면을 어느새 파고든다.

### 2 박윤지, 이상민 Public Vision

11.6~30 스펙트럼 갤러리

전시는 감각 단위의 경험을 재연하는 박윤지와 이상민의 작업을 조명한다. 박윤지는 금속 소재의 오브제 설치 작업을 통해 개인적인 시간 속에서의 시선, 이상민은 전화기와 혼합현실을 통해 고립된 시공간 속에서의 사유를 전시 공간 안으로 연장한다.

### 3 원성원 들리는, 들리지 않는

10.5~11.13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수천 장의 사진 조각을 플라주해 현실적인 비현실 세계를 구축하는 원성원의 개인전. 이번 전시에서는 사회 속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드를 땅에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나무와 주변 생태계에 비유하여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저마다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유머랜드주식회사

9.14~12.26 대구미술관

이동민 | 대구미술관 학예연구사

〈유머랜드주식회사〉 기획의 출발은 B급 감성이었다. 누구나 유독 좋아하는 유머 코드가 있을 것이다. 나에게도 있을텐데 평수가 던지는 눈치 없는 멘트들, 어느 공무원이 낸 어이없지만 웃긴 축제 홍보 포스터 아이디어 등 소소한 장난 같지만 은근히 말이 되고 뇌리에 쑥 박히는 유머가 확실히 취향이었다. 심지어 웃기고 재밌는데 의미가 빠가지 때리면 유익하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더불어 밈, 짤이 일상적으로 쓰이며 예술의 영역으로 침투해오는 요즘, 이러한 현상과 감성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유머랜드주식회사〉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30대 작가들로 구성되는 Y 아티스트 프로젝트의 특성을 살려 'MZ세대'의 예술과 유머코드를 보여주고 싶었다. MZ세대들은 기존의 관습과 체계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본인의 상황에 대입하여 새로운 맥락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낸다. 따라서 이러한 MZ세대의 감성을 반영한 유머 코드로 사회와 예술의 면면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2021년 MZ세대 작가들은 동시대 미술의 흐름 속에서 더욱 새로운 것을 찾고 있다고 보인다. '저항할 것 없는 사회'에 저항하는 방식으로 유머를 택하고 순수 미학적 쾌감에 몸을 맡긴다. 또는 진지함에 저항하는 수단으로 유머를 선택한다고도 볼 수 있겠다. 미술과 사회의 여러 상황 속에서 가볍고 무거운 것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젊은 작가들에게 '유머'란 시대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았고 작게나마 동시대 미술의 단면을 보여주고자 했다.

최수진, 장종완, 이준용, 이승희, 김영규의 유머는 제각각의 맥락이 있었다. 먼저 최수진을 통해 온전히 예술가의 감각으로 이루어나가는 세계를 만나볼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미적 쾌감과 아름다움을 생성하고 있었다. 가장 원초적인 웃음의 원인인 기쁨과 행복감이 잔뜩 느껴지는 것이다. 반면 장종완과 김영규는 서늘한 유머를 보여주고 있었다. 웃지만 썩-한 느낌은 느낌적인 느낌만은 아닐 것이다. 이준용은 일상의 공감과 포착을 통해 귀엽고 웃기고 슬픈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해주었다. 이승희는 '우리가 남이가'라는 의미의 다양성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윤택 있게 보여주었다.

이들의 작품을 모아놓고 보니 예쁘고 웃기고 조금은 슬프고 심각한 것도 같다. 분명 우리의 현실인데, 우리는 멀찍이 떨어져 구경하고 또 웃는다. 한참 웃고 나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이들은 때로는 무섭도록 냉철한 관조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때로는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듯한 태도를 취하지만 유심히 살펴보면 동시대 예술에서 유효한 질문 하나쯤은 던지고 있다. 이들에게는 유머로 치환되지 못하는 불꽃이 있는 것이다. 시간은 흐르고 예술은 언제나 뒤늦게 의미를 획득하지 않던가. 뭐든지 '더더더' 하다가 '어어어' 하고 끌려가는 시대정신 속에서 B급 감성이란 부드럽고 말랑말랑하지만 깨물어보면 딱딱한. 나름의 저항의식이 아닐까. ●



왼쪽 〈유머랜드주식회사〉 《연봉 1억 미술작가 되는 법》의 저자 김영규 섹션 풍경  
오른쪽 장종완 〈장면1\_색은 아주 깊이 물들어 있다.〉한지에 아크릴 과슈145.5x112cm 2021